

“20대엔 일밖에 몰랐지만

30대의 나, 여자 임수정 중요”

영화 '시간이탈자'서 1인2역 연기

“나이가 들수록 예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40대가 넘어가도 여자이고 싶은 마음이랄까~중년이 돼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관능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여배우 임수정(37)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로맨스·멜로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삼십 대 후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옛된 얼굴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수수함, 그리고 솔직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로맨스·멜로에 끌리다는 그녀에게 혹시 결혼에 대한 조급함은 없는지 물었다.

“결혼은 40대 초반에 하고 싶어요. 그게 맞으면 참 좋겠어요. 30대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로망했던 시기였어요. 배우도 좋지만 여자로서, 온전하게 저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거든요. 20대 때는 정말 일이 전부였어요. 여자 임수정을 돌보지 못했죠.”

그는 '장화, 홍련'(2003)에서 보여준 소녀 이미지에서 조금씩 벗어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2006), '행복'(2007), '김종욱 찾기'(2010) 등을 거치며 사랑스러운 여배우로서 입지를 굳혀 나갔고, '내 아내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이에도 맞는 여자다움을 찾았다.

전작 '은밀한 유혹'(2015)에서는 욕망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며 이제까지 맡은 배역 가운데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캐릭터를 맡았다. 배우로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녀에게 어떤 목표가 있을까.

“전작 빼고는 이제껏 출연한 영화가 모두 손익분기점 넘겼어요. 이제는 흥행이라는 결과물이 따라와 주는 영화를 하고 싶어요. 천만이요? 더 가면 안 되나요?(웃음)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관객의 선택도 받고 싶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 마음 생겼더라고요. 배우의 욕심이지.”

30대를 온전히 '여자 임수정'을 위해 쓰겠다고 밝힌 그는 이날 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이 참

많았다. 안젠가는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고,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 이후 10년 넘게 영화만을 고수한 태도를 바꿔 드라마 출연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요즘 드라마가 사전제작되며 예전과 다르게 제작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것보다도 저는 단지 영화가 좋아서 미련하게도 10년 넘게 영화만 했어요. 너무 고집스러웠죠. 다작했던 것도 아닌데, 그간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드라마도 마음을 열고 도전해보려고요. 예능 출연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임수정은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시간이탈자'에서 1983년의 윤정과 2015년의 소은으로 1인 2역을 맡았다. 그는 “배우로서 1인 2역을 맡는 일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983년 1월 1일 고등학교 교사 지현(조정석)은 같은 학교 동료이자 연인인 윤정(임수정)에게 청혼하던 중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 의식을 잃는다.

2015년 1월 1일 강력계 형사 건우(이진욱) 역시 뒤쫓던 범인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30여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병원에서 실려 간 지현과 건우는 가까스로 살아난다. 이후 두 사람은 꿈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보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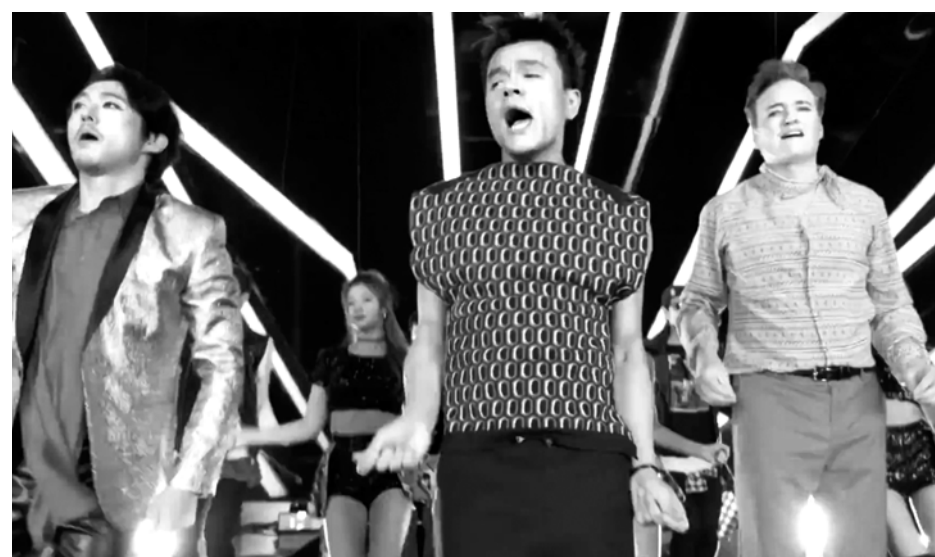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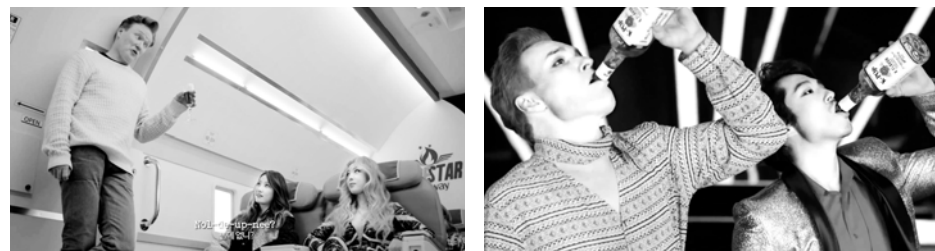
'엽기적인 그녀'(2001), '클래식'(2003) 등 결혼한 감성 멜로 영화를 연출했던 박재용 감독이 12년 만에 내놓은 한국영화 신작이다.

그러나 감성 스타일을 표방한 이번 영화는 멜로와 스릴러를 모두 놓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야기 흐름은 딱딱 끊기고, 전개가 산만하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가 전부 놓친 격이다.

다만, 주연 배우 임수정의 변(變)에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스릴러에 멜로 감성이 들어간 점은 새롭고 좋은 시도죠. 로맨스·멜로 영화 제작 비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멜로 감성을 계승할 방법이 이런 복합장르라고 생각해요. 관객의 선택을 통해 인정을 받으면 장르적으로 더 확장될 길도 열릴 것이고요.”

/연합뉴스



박진영 신곡으로 돌아오다

‘라이어’ 뮤비 코난·스티븐 연 출연…美 ‘코난쇼’서 공개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이 10일 디지털 싱글음반 ‘스틸 얼라이브’(Still Alive)를 내고 방송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진영은 10일 오후 7시30분 싱글 타이틀곡 ‘살아있네’와 ‘라이어’(Fire)를 음원사이트에 공개한다. 음원 공개 직전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인 SBS TV ‘K팝 스타 5’를 통해 ‘살아있네’의 첫 무대를 선보인다.

또 미국 유명 토크쇼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이 지난 2월 내한 당시 촬영해 화제를 모은 ‘라이어’의 뮤직비디오가 한국시각으로 이날 낮 12시 미국 TBS ‘코난쇼’를 통해 베일을 벗는다.

박진영의 자작곡 ‘라이어’는 1980년대 펑키와 록을 결합한 장르로 코난 오브라이언을 비롯해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연, 가수 박지민이 피쳐링에 참여했다.

지난 9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살아있네’는 박진영이 22년 음악 인생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풀어낸 노래이다. 데뷔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박진영은 1994년 데뷔 이래 ‘날 떠나지마’(1994), ‘엘리베이터’(1995), ‘그녀는 예뻐’(1996), ‘히니’(1998), ‘나가는 그집’(2007), ‘어머님이 누구니’(2015) 등의 히트곡을 냈으며 2PM, 원더걸스, 미쓰에이, 트와이스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SBS 뉴스 10 2016 마스터스골프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00 SBS 뉴스 10 2016 마스터스골프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물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	00 역사자널 그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2			00 MBC 점오투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1	10 뉴스특급	00 KBS네트워크특선 <법상의 전설> 55 우리 사는 세상(재)	00 사람과 사람들(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2	30 직인직실	00 제20대 총선 후보자 경력방송 제2차 <광주·전남 총선 지역구 후보 및 광주 동구청장 후보> 3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다큐멘터리 3일(재)	00 키즈 사이언스 5
3	00 이옥정 PD의 요리인류 킨 10 송터 15 TV 책 55 튜튼생활체조	05 후토스 읽어버린 송(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캐드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한국의 야생 20 취재파일 K(재)	00 TV유치원 30 이옥정 PD의 자연을 담은 항끼 40 동물의 세계(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5	4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재)	00 MBC이브닝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강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25 우리집 골단지	50 일일드라마 <전설의 약수>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45 선거연설 방송 <더민주 송갑석·신정훈>
9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05 정은표의 세계유산순례 40 선거연설 방송 <더민주 송갑석·국민의당 서상석>
10		00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연설 (새누리당) 1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대박>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선거연설방송 <권은희> 20 테마여행길
12	40 2016 동아일보 서울 국제마라톤대회 6인의 질주 1회	2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 특선

EBS1	
05:00 EBSe 생활 영예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가는 한국인 <친환경 에너지 파수꾼 배터리백 제조 현장>	09:40 라이브 토크 <부부>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정환경 에너지 파수꾼 배터리백 제조 현장>
06:10 EBS 인문학 특강 <내 사위의 여자>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 <도시에 살고있다>(재)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2:00 EBS 점오투 뉴스 12:10 시대공간 <스토리 그 곳>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당동명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츠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츠(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뽀롱뽀롱 뽀로로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20 피터 래빗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60 으악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당동명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특목보! 보너스!~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송어야 송어야> 20:50 세계테마기행 <거대한 역사를 품은 섬, 타이완> 21:30 한국기행 <봄날 불면, 사랑> 21:50 EBS 다큐 프라임 <중앙아시아, 살아남은 야생의 기록>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간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특별기획 <통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1일(음 3월 5일 癸亥)

子	4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60년생 밤심한다면 실수할 수 있다. 72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남의 원성을 사게 된다. 84년생 현장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많은 미련을 남길 수밖에 없는 판국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07, 42	午	42년생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54년생 억지로 되는 것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66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78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68, 83
丑	49년생 마음먹은 대로 임의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61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분수를 먼저 잊지 않는다. 85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0, 55	未	43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55년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67년생 먼저 눈의되어야만 비난을 받지 않는 법이다. 79년생 실용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만 생산성을 도모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23
寅	50년생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으려는 격이다. 62년생 한번 정해진다면 계속 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74년생 끝도 없이 계속 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86년생 발전이 아니라 늘릴 것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4, 62	申	44년생 자기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임하라. 56년생 마음만으로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68년생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니 버리는 것이 좋다. 80년생 실증이 난다고 해서 미룬다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 행운의 숫자 : 48, 43
卯	51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63년생 어지간하면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낫다. 75년생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곳에 문제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87년생 서로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7, 11	酉	45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57년생 오래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69년생 힘들어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될 것이다. 81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행운의 숫자 : 87, 63
辰	40년생 무리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되느니라. 52년생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64년생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76년생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88년생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2, 81	戌	46년생 오직 통일된 원리로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58년생 미끼일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70년생 눈요기에 그쳐야지 덤실물었다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82년생 안되면 되게 하라. 행운의 숫자 : 43, 29
巳	41년생 선후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53년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라. 65년생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될 전망이다. 77년생 힘에 부친다면 내려놓아야 맞다. 89년생 평온하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우려할 바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9, 27	亥	47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9년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한다. 71년생 상호 공존하는 성숙을 만들어 가져. 83년생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2, 3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